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1-11)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사실은 마리아의 신앙고백이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던지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그것이 메시지의 포인트이다.

우리가 만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이 되어 들어오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어진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말씀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진다. 결국 끝에 가면 답이 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답이 되기도 하고 결론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나도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언약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도는 이거 하나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기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된다. 언약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그것이 내 기도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생각할 것 없다. 응답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들어오면 즉시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적으로 주신 이 언약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매일 다시 한번 언약으로 확인하고 잡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 꿈이 언약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평생 계속 이것 하게 된다. 이 언약 잡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저주에서 해방이 되게 되어 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노예된 것으로부터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본 말씀처럼 그냥 나오는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큰 재물까지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면 계속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았다 하면 일단 준비가 끝난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을 받는 날 되기 바란다. 준비가 끝났다. 끝났으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준비가 끝난게 다 끝난것과 같다. 이제는 이언약을 누리고 선포하는 일을 노력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현장에 현실로 나타난다. 그것이 응답이다. 이 응답은 반드시 237,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작품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언약의 사람이 다 되기 바란다. 간단히 이것을 기도제목으로 잡으면 된다.

1. 그대로 하라.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 된 유명한 말씀이다. 유초등부의 노래에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본문 5절에 그대로 나온다.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사실 신앙고백이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시던지 그대로만 해라.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정혼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관계 없이 어느날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누가 뭐래도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어도

나는 그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야임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확신있게 말할수 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시던지 따라만 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면 이렇게 말할수 있다. 진짜 알면 누구에게든지 딱 말할수 있다.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끝이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냐는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설교만 계속 하는 것이다. 오늘 부로 우리 모두 답나기 바란다.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돌아볼 필요 없이 그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다.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 말고 다른거 안해도 된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다.

4절을 보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 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자신과 무슨 상관 있냐고 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였다. 아버지가 있어야 엄마가 되지, 아버지가 없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절대 기분나쁘지 않다.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마리아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해결해줬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왜 기적을 베풀어주셨나?

본문에 확실히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무엇이나면, 마리아의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기적과 응답은 그리스도 고백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확실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고 확실한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아마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이 말씀이 현장에 나타나는 방법이 고백하고 잡고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이것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해준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을 악용한다. 마리아가 이야기 하니 예수님이 들어준 것이다. 마리아에게 비는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이다. 오늘 마리아는 무엇을 했나? 이것은 부탁이나 기도라기 보다는 신앙고백을 했다. 떨어졌다고 말만하고 하인들에게 신앙고백을 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4:12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고 하였다.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기도라기 보다는 사실은 신앙고백을 한 것이다. 마리아가. 우리도 말씀 그대로 하면 된다.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신 말씀대로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안될것이 없다. 모든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언약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요즘 언약송 자주 부르시나? 언약송을 자주 불러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 뱀의 머리를 박살내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다. 말씀이다.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쓸데 없는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전부다 이래 되기 바란다. 나를 포함해서 전부 이래 되 버려야 하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때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그냥 그 분의 말씀대로 하면 되고,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으러 왔다. 물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드리는 것도 귀하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고,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가장 근본은 하나님 오늘도 한주간을 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흑암세력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세계 복음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본기도 한 다음에, 나의 기도, 1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하면 된다. 어떨 때는 이대로 하려니 힘들수도 있다.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기적이 계속되다가 어느날 인생 전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때는 큰 응답이 오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말씀 그대로 하라고 했다.

2.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의 목적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냥 물리적 변화가 아니다. 또 물하고 알콜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예를 들면 돌을 방에다 놓으면 어디 갔다 오니 찰떡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가? 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찰떡이 되겠는가? 조그만 돌맹이가 어느날 병아리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런때는 하나님이 영광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응답도 된다. 아주 기적과 같은 응답이 된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11절에 그것을 써냈다. 예수님께서 이 첫표적을 가나에서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응답과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데 이 응답과 기적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에 이런 중요한 것도 주신다.

모세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뒤에서는 아주 막강한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길수 없다. 앞에는 도망도 못간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데 그 바다에 길이 나버렸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는데 적군은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다. 만나가 처음 내려오던 그 날도 안 그랬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나왔는데 두달쯤 지나고 다 떨어졌을 것이다. 먹을것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있었다. 그것도 매일, 40년동안. 놀랍다. 이런 영광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그거에 답을 주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답을 주는 것이다. 설명할 것 없다. 증거를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물에다가 물감을 탄다고 해서 포도주 되는 것이 아니다. 할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다.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다. 조용히 한 것으로 정리하면 된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다.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인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는 재료도 필요 없이 말로 끝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 들어와 언

약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이것이 내게 들어와 영적 힘이 되어서 이것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무너져 가야 한다. 계속. 그래야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영적 문제가 있다. 인간은 아무도 할수 없는 이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것이다. 진짜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날이 와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그 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느날 발견해야 한다. 진짜로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바란다. 정말로 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깊이 언약으로 간직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각인해야 한다. 성경에 설명한다. 니가 이 언약을 잡고 이것을 고백하면 니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요, 니가 힘으로, 니 노력으로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이것을 누리면 내가 니 앞에 문을 열어줄 것이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너는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음부의 권세가 어찌 너를 이기겠는가? 니가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다. 기도해라.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다. 이 언약을 매일 고백하면 출애굽과 똑같은 역사를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지난 주 말씀이다. 그건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끝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왜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지 않는가?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 니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날 저녁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그날 저녁, 그 언약의 피 유월절인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지속해야 한다. 내 마음에 지속하고 기도속에 하고 살아가면서 하고, 여하튼 이 언약을 지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으로 준 것이 없다. 이것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성령에 써 놓으셨다.

성경에는 수 많은 약속이 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오늘 기적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본문의 목적도 한 개다.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눈으로 보이니 인간이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나는 본래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있는거야.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근본 언약이다. 이 언약을 누리면 사단이 무너진다. 인생의 문이 열린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면 그것은 종교이다. 안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개인 언약은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언약을 받고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에게 이 언약을 주시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왜냐면 그 언약으로 결국 할 일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기 바란다.

오늘 그대로 하라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왜냐면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근본이고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하면 가장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래서 오늘도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 받아 나가는 축복의 한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람이 되기 바란다.